

시련을 이겨내고 들어선 제과인의 길 세상에 보내는 작은 편지 하나

케익하우스 '광' 윤성애

신촌의 명소로 자리잡은 케익하우스 '광' 에는 '고모'라 불리는 윤성애씨가 있다.

그녀가 남들과 다르게 생각되는 이유는 스무살 때부터 그녀 삶에 끼어든 청각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조용한 목소리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인터뷰가 시작될 즈음 그녀가 기자에게 내민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얘기로 뽁뽁한 몇장의 편지지.

이제야 힘들었던 지난날을 '추억'이라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고모'의 얘기를 들어본다.

<글·허윤정 / 사진·박경배>

할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나의 길

"잠시 도와주다 시집가렴..."

14년 전 내 나이 31살 되던 해, 새언니가 강남에 오픈한 케익하우스 엠마는 사회를 향해 내딛은 나의 첫 걸음이었고, 그때부터 '엠마 고모'라는 호칭은 나를 따라다녔다. 의상 디자이너를 꿈꾸며 재봉틀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포장과 판매일을 시작했다.

대학 1학년 수업시간 도중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내 귀는 정지되었고 이를 항상 걱정했던 새언니는 나를 품안에 두고 시집 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매장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나는 문득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무언가를 느꼈다.

"빵을 만들고 싶다!"

결국 난 아버지와 마주앉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과를 배우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화를 내실 줄만 알았던 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정녕 피는 못 속이는구나..."

할아버지께서도 빵을 하셨다니! 고(故) 윤창호 선생, 일본 유학 후 김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시며 당시의 제과대회였던 공진회 생과자 부문에서 두번이나 상을 타셨다는 내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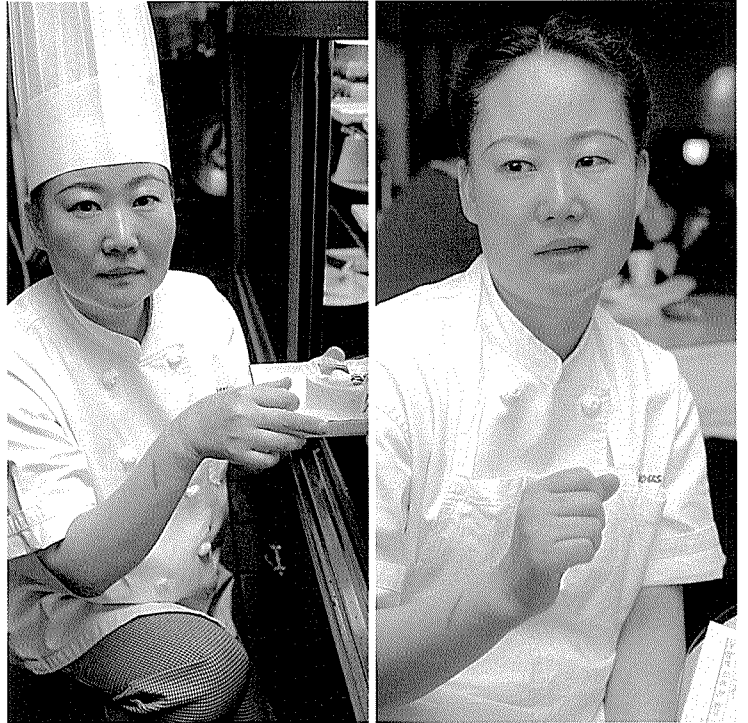
운명처럼 다가온 제과인으로서의 나의 길은 그렇게 정해졌다. 오빠와 새언니의 도움으로 제과학원에서 정규반과 데코레이션반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던 날,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제과점 사장인 오빠 내외는 계속 나를 도와 주려고 했지만,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었다. 처음엔 일본으로의 유학까지 결심했으나 내가 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 많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부산의 작은 점포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정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역경도, 고통도 빵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 되어
그날부터 나는 뛰기 시작했다. 소개장 하나로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가 6전7기 끝에 바다 가까이에 있는 과자점에 취직한 날, 그날이 1993년 7월 5일 내가 35살 되던 때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고생의 시작이었다. 청각 장애로 인해 사람들의 말은 눈치로 이해해야 했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는 유난히 마음이 여린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주위에서는 여자 혼자서 몸으로 부산까지 와서 일하는 나를 보며 금방 포기할 거라 했지만 난 그저 말없이 일하며 꾀꿉이 지냈다.

그동안 IMF로 인해 정든 곳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고 양과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힘든 견습생활도 경험했다. 견습생 시절에는 안양 집에서 잠실까지 첫차와 막차를 타며 힘들게 지냈지만 배움의 기쁨 하나로 출퇴근을 했다. 이는 오직 할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빵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생명체라고 믿는 '엠마고모' 윤성애씨는 일할 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보며 둥근 삶의 보람을 찾는다.

빵처럼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고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나는 발효실의 빵처럼 마음도 살이 썩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속상해서 우는 날이면 귀울림이 심해져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만든 빵은 여지없이 맛과 향이 부족한 제품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둥근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했다.

결국 나는 "3년만 일하고 시집가겠다"고 부모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됐다. 이제는 천천히 마음의 여유도 되찾고 현직에서의 일꾼을 자칭하면서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신은 내게서 한쪽 귀를 가져갔지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 오늘도 퇴근길에 핸드폰의 액정 글씨가 나를 지켜준다. '포기할 수 없는 내 길'. 할아버지가 정해 주신 길이기에 오늘도 묵묵히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에도 그림자가 돼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내 할아버지께 이 편지를 바친다.



케익하우스 엠마에서 일하던 시절, 달력에 있던 빵굽는 소년의 그림은 윤성애씨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위안을 주기도 했다.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말벗인 빵굽는 소년의 그림. 지금도 그녀는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지갑 속에 갖고 다닌다.

인터뷰일은 음력 1월 6일, 윤성애씨의 45번째 생일이었다. 제과일을 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의 생일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편지를 세상에 들려주었다. 10년 전에 비해 다소 여유로운 오늘이 있기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는 완숙한 제과인으로서 충만한 인생을 이루어 가는 '고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퇴근 후 현재 몸담고 있는 케익하우스 '광'의 직원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면 수줍게 웃는 그녀의 미소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